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佛敎新聞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7년 11월 6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10월4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59호 수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은 10월31일 중앙종무기관 조회 직후 종무원들과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 월동용 연탄과 쌀을 전하며 제34대 임기를 시작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중앙종회 196회 정기회가 1일 개원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장 향적스님(가운데)은 인사말을 통해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총무원에 대한 기대 등을 전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친절한 봉사·자비나눔 집행부 천명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첫날 '봉사와 나눔' 행보

교구중심제 · 노후복지 원만추진토록 특별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제34대 집행부 출범 첫날인 지난 10월31일 대외적으로는 자비나눔을, 대내적으로는 봉사하는 종무행정을 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임기 첫 조회에서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권위의식을 버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종무행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종무원들과 홍제동 개미마을을 주민들의 월동준비를 돕는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꼽은 34대 집행부의 중점사업은 △친절한 종무행정 서비스 △승가복지제도 강화 △교구중심제 실현 △조계사 성역화 불사 등이다. 스님은 "24개 교구본사를 다니며 총무원이 권위적이란 지적을 많이 들었다"며 "권위의식은 버리고 봉사정신을 갖고 본사가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종무행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종무원들에게 봉사하는 종무행정을 강조하기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임기 첫날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종무원들을 위해 빵과 요구르트를 직접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출근길 아침을 거른 종무원들에게 간식을 건네며 34대 집행부가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인단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종무원들을 기다렸다"는 스님의 친근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종무원들의 각광을 받았다.

이와 함께 "8대 운영기조 가운데 첫 번째인 교구중심제가 가능하도록 총무, 기획, 재무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덧붙였다. 또 스님은 "승가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기대가 생각 외로 컸다"며 스님들이 노후에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총무부의 노력도 요청했다. 통합종단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불사인 조계사 성역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대 총무원이 안으로는 친절한 종무행정을 추구한다면 밖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종단을 추구한다.

33대 때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34대 취임 첫날에는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갔다.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미마을을 방문한 총무원장 스님은 종무원들과 함께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소득층 총 280여 가구에 쌀 290포대와 연탄 2만4000장 등 총 4000만원의 물품을 전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련기사 3면

'이웃과 함께 하는 집행부' 8일 출범

오는 8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리는 제34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도 이웃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취임식에는 7대 종단 및 이슬람 등 이웃종교와 이웃종단 등이 참여한다. 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이 축가를 부른다.

주목할 부분은 33대 때 총무원장 스님이 자비 나눔의 일환으로 매월 방문했던 시설의 관계자들을 초청한 것이다. 취임 초기 때부터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용산참사 유족들과 쌍용자동차 노동자회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승가원과 나눔의집 피해 할머니, 제주도 강정마을 회장과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조계사와 이웃인 종로구 환경미화원과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 관계자들도 참석해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한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34대 집행부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외에도 종단 운영기조와 대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선거 후 첫 종회 '화합과 발전' 다짐

종회의장·총무원장 스님, 196회 정기종회 개원인사

고불총림 방장 추대 호법부장 임명 '동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가 지난 1일 196회 정기회를 개원하고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지선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로의원 대원, 지성, 성파, 성우스님의 대종사 법계품수 동의안과 조계종 호법부장 원명스님의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종회에서 종회의장 향적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당선을 축하하며 "제34대 집행부도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전근대적인 총무원 기구를 시대에 맞게 개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새롭게 출범한 제34대 총무원장으로서 중앙종회에 참석한 자승스님은 불기2558(2014)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에 대해 "성심과 성의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구중심의 종단운영을 포함해 종단 운영구조와 조직체계, 중앙과 교구, 사찰의 관계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그 실행가능성을 오는 1월 34대 집행부 발전계획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정감사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성월스님을 선출했다. 이와함께 불기2558(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동의의 건이 주요하게 처리된다. 또 종앙종회의원이 호계원 사무처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지난 회기에 이월된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과 승가고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은사 스님이 일찍 열반한 경우 새로운 사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승려법 개정안, 종단 표준의례의식 변경을 제한하는 의례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선출도 진행된다. ▶2면에 계속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종책 개발·집행부 견제역할 충실"

3자연대 '협의체' 논의

옛 무량회, 무차회와 백상도량 소속 종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3자연대가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3자연대는 1일 19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무차회 장적, 일문스님과 무량회 장명, 도정스님, 백상도량 심우스님 등 5명이 함께 했다.

장적스님은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보선스님을 지지했던 3자연대 소속 종회의원 19명이 지난 10월30일 모임을 갖고 서로 공조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생산적 종회를 이끌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종책모임 구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3자연대 종회의원 스님들은 종회에 임하는 입장문을 통해 "3자연대는 종책모임 본연의 업무인 건강하고 생산적인 종책 개발과 총무원 견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며 "여느 정기회와 다르게 많은 종책질의서를 종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의(宗義)의 대변인답게 총무원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종도들에게 존경 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종도들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어현경 기자

국정감사 '국사편찬위원장 편향' 집중 질타 6면

민주화 이끈 사회 지도자 선지식 반열

고불총림 방장 지선스님

지난 1일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에서 고불총림 방장으로 추대된 지선스님〈사진〉은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님을 몸소 실천해왔다.

지선스님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61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4년 경남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제주 관음사, 영광 불갑사, 장성 백양사 주지와 조계종 종정사서실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백양사 수좌 소임 등을 맡았다. 백양사 주지 소임을 보며 고불총림을 복원했다.

불교의 현실참여에 관심이 지대했던 스님은 1980년대 민족·민주불교운동에 나선 이후 줄곧 사회운동에 앞장서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렇지만 수행자의 본분사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참선 정진을 거듭했던 스님은 시대와 역사의 부름에 따라 산문보다는 아스팔트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늘 자신의 임무가 끝나면 선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

지선스님은 지난 8월30일 백양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 후보로 추대된 바 있다.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은 임기 10년으로, 총림을 대표하고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1구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시는 또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교환경이 열악한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한 선업을 쌓는 일입니다.

▮ 독자기획사업부 (02) 730-4488
▮ 문 자 전 용 (010-4157-4406)

약사여래가 머무는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기도
밤 11시 시작~다음날 새벽 4시까지
문의 033)342-3372, 010-3738-0338
※기도하는 분의 편의를 위해 숙식도 가능합니다.

몸 아픈 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 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나는 도량

힘들고 지친 삶을 위하여 쉴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하여 치유의 땅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도 횡성 태기산 700고지에 건립된 약사도량 대법사는 약사여래의 신통한 힘이 머무는 곳으로 육체의 병을 치료하고 마음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법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2리 109-1